



地球의  
超異變

# 2000年5月5日

## Pole Shift!?

— 全面 核戰爭보다도 더 처참한 破局이? —

존·화이트 著  
張世元 譯

〈前月號에서 계속〉

그후 태양은 점점 어둡게 되어 달은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천체(天體)가 요동하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는 여러나라의 국민들이 고민과 함께 바다의 파도소리에 놀라며 공포의 순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으로 알고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은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 신의 나라의 복음(福音)이 세계에 전해지는 날이기도 하나, 그로부터 최후의 순간이 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재화의 기간이 줄어 들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 “신” 또는 예수의 진의(眞意)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고난으로 끝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신에 의해 구출되거나 살아남는다는 뜻).

그러니 조심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날은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과 이성을 잃은 상태나 여러가지의 일상적인 괴로움으로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올라가미처럼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치는 것이니...」(누가傳21, 마태傳 24章등)

### 멸망(滅亡)은 4개의 스텝을 밟는다

이렇게 단숨에 이야기를 끝마친 예수는 곧 기록에 의하면 그 수일후—로마의 관현(官憲)에 체포되어 번영의 세계를 외면하는 위험한 예언을 유포한 악인(惡人)으로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는 초능력과 반역의 청년 예수가 생명을 절은 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며 가장 호소하고 싶었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들이 만약 크리스찬이나 미션계 학교의 출신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교회에서나 미션스쿨, 또는 명문대학(극일부를 제외)에서도 이 가장

중대한 예언이 가장 중대한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신의 사랑」이라든가 「주 예수의 영광」이라든가 하여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파멸의 예언은 예수의 진정한 호소였다는 것은 그의 유일한 기록인 성서(聖書) 그 자체를 읽어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을 작오하고 그와같은 종말의 대파국에의 경고를(그가 본 미래의 인류·우리들에 대해서) 이미 2000년전, 필사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만큼 이 예언의 무서움은 철저했었다. 진정으로 절박한 일인 것이다. 모든 파멸 예언을 집약한 원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분석해보면 그것은 다음의 네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먼저 인간의 마음이 이상해진다. 욕망과 이기주의자가 된다. 백신과 서로 미워하며 사랑하고 있는 듯이 보이던 사람조차도 냉정하게 된다. 불법(범죄와 권력의 부정)이 만연하며 말세적인 무서운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난다.

② 그리고 전면전쟁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고 이스라엘이 포위된다. 「북의 왕」(北의 王) 독재자의 대군이 중동(中東)에 밀려들어 그 결과, 전에 보지 못한 참화가 일어난다.

③ 거기에 대자연의 이변이 덮친다. 대지진, 역병, 기근, 바다와 파도의 노도 즉 대해일과 대홍수, 식량위기가 계속 일어난다.

④ 다시 결정적인 천체이변.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징조(종말의 사인과 같은 혹성의 배치나 태양면·달면의 이상)가 나타난다. 해와 달도 어둡게 된다. 별이 떨어진다. 여러가지의 천체(지구도 천체의 하나이다)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 같은 이변으로 극일부의 인류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과 같은 최후가 닥쳐온다.

## 이것은 「(超) 포울·시프트」인가

「퀵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예사의 혹성의 이상정열(異常整列)이라든가, 예사의 지축이변(地軸異變)과 같은 정도의 것이 아니다. 물론 예사의 대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합친 전부가 일련의 고난으로서 닥쳐온다. 일종의 초(超) 포울·시프트, 또는 종말대전(終末大戰)+우주대이변과 같은 것을 예수는 인류파멸의 양상으로써 말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같은 말을 했더라면 터무니 없는 엉터리라고 하여 웃어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은 보통의 예언자, 보통의 영감자(靈感者)가 아니다.

당시도 지금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세계최대의 종교를 창시하고 그후의 구미문명(歐美), 즉 지금의 세계문명의 주요부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그 문명의 끝에 오는 파멸을 이와같이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예언이 적중될 것에 깊이 겁을 낸다. 2000년전, 그의 제자들도 물론 그것을 겁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그러한 최후의 날이 언제 올런지요」하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예수는 냉정하게도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대를 누가 알겠는가. 하늘의 사자(使者)들이나 그의 아들도 알지 못할 것이다. 단지 아버지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 자신도 「천사」라고 불리웠던 정체를 명의 존재도 그 대파멸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단지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진정으로 초월적인 근원자만이 그 일어나는 날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 초월자에 뜻을 맡기고 예수도 파멸의 날과 시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읽을 필요조차 없이 앞에서 말한 멸망증후군(滅亡症候群) 가운데 주요한 몇가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현대인이려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예로 ①의 권력의 말세적인 부정, 말세적인 무서운 범죄들. 그러한 것들을 당신은 매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직접도 볼 수 있다. 남녀와 가족의 「사랑이」 식어가고 욕망과 이기만이 남아 서로 배신하며 미워하는 사람들 이것도 요즘은 다반지사.

②의 전면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결과 격전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우기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이스라엘의 주변은 아랍과 이슬람의 총력을 다한 군대로 점차 포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과 유대, 그 어느쪽이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예수 예언의 적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긴박한 중동에 「북의 왕」(北의王)이 우르르 들어닥질 것이라는 예언도 (아직 전부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그 일부는 소련의 아프칸 침공이라도 형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적중하고 있다.

③의 지상에서의 대이변, 이것도 세계의 사람들이 공포로 기절할 정도의 초지진과 대해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앞서는 듯한 지진과 분화, 홍수나 한발이 각국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상 이변과 자연파괴에서 온 식량위기가 (일부 혜택을 입은 선진국을 제외하고) 지금 지구를 뒤덮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예수예언과 이처럼 부합하는 시대는 지금 아니고는 달리 없다

고 본다면 예수예언의 네가지 가운데 세가지의 반 가량은 이미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예수예언과 이처럼 꼭 들어 맞는 시대는 — 전지구적인 재해나 대전이 어느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 아무래도 현대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의 부분도 어느 때는 적중할 것이 아닌가. 태양과 달이 어두워지며 별이 떨어지고 천체가 요동하여 얼마간의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최후의 날. 그것은 지난날에는 엉터리라고 받아들여졌을지 모르나 지금의 인류는 핵전쟁으로 불어치는 대량의 죽을의 재에 의해 태양과 달빛등이 간단하게 차단될 것이다.

인공의 별 몇백개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더우기 「요동하는 천체」. 이것은 우리들이 이 책에서 추구해온, 2000년의 혹정정별(惑星整列)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는 포울·시프트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전과 대지진 그리고 기근에서 초시프트까지 동방 합쳐서 역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 「묵시록」과 현대의 기분 나쁜 일치

더우기 「요하네의 묵시록」이 이를 보완한다. 「묵시록」이란 앞에서 잠깐 말했으나 예수의 죽음 후, 제자 요하네가 「스승의 녀에 인도되어」 보았다는 종말의 광경을 그린 것이다.

이에 의하면 세상이 끝나기 전 우주공간에는 「파멸의 천사」 일곱명이 나타난다. 그들은 지구를 향하여 여러가지의 파멸요인을 잇달아 하나하나씩 떨어뜨린다. 「대지진과 역병을 가득채운 주발」 「대한발을 일으키는 주발」 「화염의 별」 「불타는 핏볼 모양의 별」 「독의 별」 「활활 타오르는 산과 같은 것」 등을.

각열의 소혹성인지 대운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의 군사위성을 암시하는 것 같은 이들 「별」이 지상에 떨어지면 (또는 「주발」의 알맹이를 지상에 떨어내 놓게 되면) 모든 멸망상황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다.

「세계 전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대지진」, 「유프라테스강 까지도 말라붙는 대한발」, 「사람들의 몸에 퍼지는 악성의 종양」, 「피와 독으로 심하게 오염되는 전세계 물의 3분의 1」, 「전멸하는 수종의 생물」, 「타버리거나 말라 죽어가는 전세계 식물의 3분의 1」...

그런데 이러한 별(罰)과 전조(前兆)에 접하고도 「인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뒤우치지 않으므로」 파멸의 천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2억의 군대」를 풀어 놓는다. 이 군대는 「철의 말」을 타고 있으며 말의 입이나 꼬리에서는 「화독」(火毒)이 뿜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것으로 인류의 3분의 1은 죽게 된다. 또 파멸의 천사가 다른 별을 사용하여 땅속 깊은 구멍을 열면 연기가 솟아 올라 태양과 대기는 캄캄하게 된다. 구멍속으로 부티는 「전차와 같은 진동소리큰 내는 금속의 메뚜기」 떼가 나온다.

그 메뚜기의 대군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나, 죽음의 이상의 고통을 준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5개월 동안이나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독을 인체에 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주할 전화(戰火)는 중동에서의 종말대전으로 집약되어 가는데 대전의 외중에도 「인간이 지상에 생겨난 후, 일찌기 없었던 초지진(超地震)」이 일어나 「여러 국민의 동리는 파괴되고」, 「모든 산과 섬들은 그 장소에서 없어지고」, 인류의 대부분은 멸망하게 된다.

「신」에 의해 선택되어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세우게 되는 극소수의 「올바른 신앙자」를 제외하고.

고대(古代)의 오악하는 무서운 주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만이다. 그러나 떨어져 오는 화염이나 독의 별이라든가 불을 뿜는 철의 말이라든가 땅 밑에서 솟아나는 금속의 메뚜기의 대군(大群)이라든가 여기에 합치되는 신병기나 초병기를 갖는 시대는 역시 현대 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근원자」가 요하네에 준 진실의 예지로써 이러한 메뚜기나 별과 말을 모은 헬머게른(最終戰爭), 「산과 섬들이 자리란 옮기는 것 같은」 포울·시프트가 가까운 미래에 역시 일어날지 모른다. 단, 먼저 말할 예수예언과 같이 여기에도 명백한 날짜와 시간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 노스트르담스 「1999년의 시(詩)」를 재확인한다」

는 뜻으로 이상 전부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최후의 일격으로 미셀·노스트르담스의 예언이 문제가 된다.

노스트르담스는 16세기의 프랑스가 낳은 심층(深層)과 요괴(妖怪)를 다룬 것 같은 천재예언자이기는 하나 실은 그의 몸에도 유태의 피가 짙게 흐르고 있었다. 부모의 조상도 남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유태비교(秘敎)의 도사(導師: 랍비)들로서 그는 어려서부터 비교를 이어 받도록 선택된 자로서 그 극의(極意)를 조부모들로부터 전수해 왔다.

즉 멀리는 구약성서의 예언자들(=고대유태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요하네로 이어지는 피기장대(怪奇壯大)한 유태의 예언체계는 노스트르담스에 이르러 완결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토리」로서의 의미와 사명을 그의 예언은 갖고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은 그가 쓴 4행시나 6행시의 시집, 발견된 몇통의 편지 그가 시중환프랑스궁정의 사람들이 남긴 그에 대한 각서 등의 속에 엿볼 수 있으나 가장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은 1555년부터 58년에 발간된 그의 예언시집 「제세기」(諸世紀: 전12권)일 것이다.

그의 시집은 실은 전권을 통한 총타이틀은 붙어있지 않으며 각권마다 「센츄리 I」, 「센츄리 II」...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센츄리」가 중세기 프랑스로 「100을 정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덧 「100년을 모은 것→제세기(현대어로 레·슈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제10권의 72번째에 잘 알려진 「1999년 7의 달」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시 소개를 하면

199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강림하리라  
앙골모위의 대왕을 퇴살리기 위해  
그 전후의 기간, 말스는 행복의  
이름아래 지배하리라

가장 난해한 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나는 이를 추구한 끝에 아마도 포울·시프트를 예지한 시라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공포와 대왕」이 지축역전에 따르는 우주이변과 기후적변의 이미지에 꼭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4행째에 「말스」(=화성→군신→군비→전쟁)라는 시어(詩語)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3행째의 「앙골모위의 대왕」도 아시아의 힘, 구차스러운 해석은 생략하나 요컨대 (서유럽에서 본) 동쪽 민족의 총공격, 아시아의 힘 또는 세계적인 동란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 이 시는 「1999년 7의 달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전, 그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어떠한 초병기에 의한 파멸 또는 이에 따르는 고공의 초오염의 강하」를 예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號에 계속)